

‘영암 빈상가’ 신선·새로운 청년의 맛이 채웠다

영암읍 빈상가채움 프로젝트...장산리푸줏간·촌스토랑 ‘인기’ 영암 한우·무화과 소스 결집인 비빔밥부터 토마토 파스타 선봬

영암군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영암읍 빈상가 채움 프로젝트’로 새로운 영암의 맛을 선보여 호평을 얻고 있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읍에서 음식점 개업 소식이 이어지면서 영암을 찾는 관광객의 먹거리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새로 문을 연 가게 중, 10월 말부터 손님 받은 두 곳이 눈에 띈다. 영암군의 ‘영암읍 빈상가 채움 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청년 식당이다. 청년들은 영암군의 지원에 자신들의 꿈을 더해, ‘신선한 맛’과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나가고 있다.

평일 점심시간, 단아한 실내장식의 ‘장산리푸줏간’에 손님들로 북적인다.

어르신에서 청년까지 다양한 계층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김혜민(36) 장산리푸줏간 대표는 “나와 동생이 영암에서 키우는 소로 한우 물회·구이, 생고기·육회 비빔밥, 차돌 된장찌개, 육개장 등 음식을 만들고, 온라인 한우 유통도 하고 있다”며 “동생이 소를 키우는 곳이 신북면 장산(長山)이어서 가게 이름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장산리 푸줏간은 김 대표와 동생 김유성(29)씨, 동생 친구 최원석(26)씨의 일터다. 7~8년 전 축산에 전념한 동생이 먼저 귀농했다. 뒤이어 김 대표도 가업을 이어 도포면에서 한우 사육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정육 경력에 있는 최씨가 힘을 보탰다.

김 대표는 판매 중인 비빔밥의 비결



영암군이 추진한 영암읍 빈상가 채움 프로젝트로 창업을 한 장산리푸줏간과 촌스토랑이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해 영암의 맛을 담은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임 촌스토랑 대표와 촌스토랑 인기 메뉴, 장산리푸줏간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석, 김유성, 김혜민씨와 장산리푸줏간 한상차림.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추진한 영암읍 빈상가 채움 프로젝트로 창업을 한 장산리푸줏간과 촌스토랑이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해 영암의 맛을 담은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임 촌스토랑 대표와 촌스토랑 인기 메뉴, 장산리푸줏간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석, 김유성, 김혜민씨와 장산리푸줏간 한상차림. <영암군 제공>

로 영암 무화과를 갈아 넣어 만든 양념장을 곁들였다. 한우와 무화과 소스 이외에도 쌀·배추·양파·상추·고추까지 영암의 재료들을 사용한다. 가게 추천 메뉴인 한우 물회에도 이 소스가 들어간다. 앞으로 출시할 제육볶음과 떡볶이 불고기도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년 창업 가게인 촌스토랑도 맛집 대열에 합류해 방문객들의 발

그는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네 종류, 장조림 닭발 등을 판다. 샐러드와 해물토마토파스타에 들어간 토마토는 직접 재배한 것”이라며 “토마토·크림·장조림 소스에 단호박 스프까지 직접 만든다 보니 브레이크 타임에도 설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ભ용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샐러드나 피자, 디저트에 넣어 개발 중이다. 추

후에는 멜론이나 고구마도 활용한 메뉴를 기획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영암의 로컬푸드에 양식을 내놓는 레스토랑이 꿈”이라며 “지역에 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며 영암 특산물로 차린 맛으로 자리 잡아 청년들과 함께하는 일자리로 키워가는 게 또 하나의 바람”이라고 웃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 내년도 국·도비 5천183억 확보...올해비 5.7% ↑

호남고속철도·무안국제공항 등 SOC·신규 사업 대거 반영

무안군이 2025년 국·도비 예산 5천183억원을 확보하며,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281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전담도와 관계 부처를 방문하며 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20억원(총사업비 1천745억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12억원(총사업비 30억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총사업비 58억원) ▲목재오션타워 조성사업 2억원(총사업비 130억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5억원(총사업비 42억원) 등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무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원(총사업비 497억원) ▲삼향 및 청계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113억원(총사업비 188억원) ▲망

운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1억원(총사업비 102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송산마을) 16억원(총사업비 28억원) ▲남악기후대응도시숲조성 사업 15억원(총사업비 50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도비가 반영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확보된 국·도비 예산은 무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동력이 될 것”이라며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신안군, ‘1섬1카페’ 주민 휴식 공간 자리매김

목포시, 道지역경제활성화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상금 1천350만원...민생경제 회복 노력 인정

목포시는 16일 “지난 13일 전남도가 주관한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천3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전남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열린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진행됐다.

전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 경제정책 발굴과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했다.

평가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실적 ▲물가모니터단 운영 실적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물가안정 대책 ▲공공·상생배달앱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실적 ▲전통시장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례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목포시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정해선 기자

정지숙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상권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시가 전남도 주관의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영광군, 내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 단체 모집

내달 7일까지...5인 이상 주민·단체 대상

영광군은 16일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다양화하고 마을 돌봄 문화를 형성할 계획이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가며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광군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씨앗 단계(소규모 공동체형), 새싹 단계(씨앗 단계 완료 공동체), 열매 단계(새싹 단계 완료 공동체)와 돌봄 공동체이며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재료비, 강사료, 홍보비, 공동체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또는 일자리경제과(061-350-4694), 영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061-351-8772)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군 옛 성화대 부지, 휴식·힐링공간 ‘탈바꿈’

풍욕장·놀이시설 등 복합공간 조성...내년 사업 착수

강진군 옛 성화대 부지가 산림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옛 성화대 일원인 성전면 월평리 산22번지 1ha가 산림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도비를 포함한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2년에 걸쳐 투입된다.

강진군은 옛 성화대 부지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산지와 연계한 사업을 모색한 결과 산림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올해 확정했고, 2025년 도시숲인 산림공원 사

